

“불자 요양보호사 양성 힘써야”

보건복지부가 노인돌봄의 사회화를 선언하며 만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 7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에서 일할 요양보호사들의 양성 교육도 2월 4일부터 전국 기관에서 시작돼 전문복지인력 양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1월 28일 ‘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및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시설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 요양보호사 양성기관 등록을 통해 보건복지부에서 예상 인력 수요로 파악하고 있는 7만여 명의 요양보호사들이 배출될 전망이다.

요양보호사란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제29조 2항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시설 등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해 식사·이동·배변·개인위생 지원 등의 손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요양보호사라 보된다.

요양보호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국가 자격이라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케어복지사·노인복지사 등 사설 자격증을 취득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포함, 요양보호사로 흡수하는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았다는 점이다. 사실상 자격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한 종사자들은 국가가 인증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하나는 요양보호사 교육·양성을 통한 40~50대 여성의 취업 활로 개척이라는 부분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가사 노동에만 매달리고 있는 잠재 인력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시행하면 사회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일터가 사설 기관이 아닌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복지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앞두고 교육 본격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수호사 교육기관으로 등록



7월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불교계도 요양보호사 양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노인돌봄 봉사자의 활동 모습. <현대불교자료사진>

관이라는 것도 이들 중장년층 여성들에게는 마음을 끄는 부분이다.

불교계가 요양보호사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부분이다. 정책이 있을 때 뒤늦은 대응으로 비판받았던 불교사회복지계가 발 빠르게 움직여 요양보호사 교육시설을 등록하고 많은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함으로써 불교사회복지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상당한 숫자의 불자들이 중장년층 여성임을 감안할 때 설득력이 높은 부분이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 양성과정에 참가한 단체 수는 72개(1월 29일 현재다. 신고는 16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받고 있다. 취재결과 양성교육기관 중 상당수는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평생

교육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계에서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서울 수호사(주지 무구)가 등록을 했으나 아직 교육기관으로 확정을 받지 못했다. 진각사회복지재단(사우처장 장용철)에서도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기관 등록에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이 중 가장 먼저 교육기관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수호사다. 수호사 무구 스님은 “제도 도입 초기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필요 인력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요양보호사는 불자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사회적으로 어르신들을 공양하는데도 유용한 일이므로 불자적 소양을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실리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좋을 것”이라 강조했다. 무구 스님은 현재 수호복지대학 공간을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강의실로 쓰면서 불자 요양보호사 양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다.

요양보호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우선 지역사회에 교육기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문을 두드려 보자.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를 현행 사회복지사처럼 1급과 2급으로 구분, 양성한다. 1급 요양보호사 양성과정 교육시간은 240시간(실습 80시간 포함), 2급은 120시간(실습 40시간 포함)으로 설정해 요양보호서비스 관련 이론 강의, 실기연습 및 현장실습을 받도록 한다. 요양보호개론·요양보호 기초지식·요양기술과 서비스 지원 등을 배우는 요양보호개론 등 대부분 요양전문과목들을 수강해야 한다.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 원기가 훨씬 수월하다.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50시간(실습 8시간 포함), 간호사는 40시간(실습 8시간 포함)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요양보호사 제도 운영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눈길도 보내고 있다. 한 복지단체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에 사회복지시설 취업을 목적으로 쉽게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생각된다”는 견해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노인요양팀 관계자는 “아직은 요양보호시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1급을 취득하려면 전문교과를 사용한 강의와 실습으로 이뤄진 240시간 교육을 마쳐야 하는데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며 요양보호사는 매우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직종이므로 실제 자격증 발급에 비해 취업률이 훨씬 낮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강진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고 하면 어떤 생각부터 드는가. 아직도 존재하는 무수한 편견이런 시선, 거기에 역사의 중언이라는 무게. 아직 그네들이 젊어지고 가아하는 점은 너무 무겁기만 하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보금자리 경기도 광주 나눔의집(원장 원형)에서는 그래도 할머니들이 편안하게 생활할실까. 할머니들과 함께 생활하는 안신권(47·사진) 국장을 만나 그가 느끼는 이야기를 들어봤다.

“할머니들 복지에도 관심을”

“할머니들이 느끼는 절망감이 안타깝게 뿐이죠.”

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안 국장은 아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전남 밤에도 그는 할머니 한 분의 잠꼬대로 잠을 설쳤단다. 밤새 ‘일본군’과 싸웠다는 할머니를 보면서 어찌할 할머니들의 정신은 60여 년 전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닌가 싶더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우리의 아픈 과거인 동시에 세계적으로도 전쟁의 잔인함을 잘 알려준 역사적 사실이다. 피해 생존자들의 애끓는 증언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일본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대한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는 결의문들이 속속 채택되고 있다. 안 국장에게는 이런 역사적 무게가 유난히 묵직하게 다가온다. 할머니들과 이십전심 살아온 세월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안 국장이 처음 할머니들을 만난 것은 2000년이다. 당시 사회복합적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그는

전문요양시설 건립 사회적 합의 필요 “할머니들 복지에 관한 책 쓰고 싶어”

안 국장이 처음 할머니들을 만난 것은 2000년이다. 당시 사회복합적 석사 과정을 밟고 있던 그는

안과 함께 평소 인연 있는 스님을 따라 시설에 들렀을 뿐인데, 시설 실무자가 필요했던 나눔의집 측에서 그에게 손을 좀 빌려달라 요청했다.

“할머니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지요. 나눔의집이 어떤 시설인지는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들어본 정도였지, 어떤 의식이 있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던 그가 이제는 나눔의집 모든 살림살이를 꿰진다. 할머니들 손가락에서부터 역사관까지, 안 국장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요즘 안 국장은 더 바쁘다. 2월 16~22일 펼쳐질 나눔의집 한일청년 캠프 ‘피스로드’도 준비해야 하고,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올해 10주년을 맞은 일본군위안부역사관 개보수도 마쳐야 한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요즘 안 국장의 고민은 다른 데 있다. 할머니들을 향



한 시선이 너무나 인권적이라 정작 할머니들에게 필요한 ‘복지적’ 영역에 대한 사회의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는 ‘나눔의집 위안부 피해자 전문요양시설’ 건립 문제다. 건립에 필요한 토지까지 모두 매입했지만 상수원 보호구역에 걸려 사실상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재건축해서 쓰는 방향으로 허가가 낮기 때문이다.

“할머니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생존자들이 모두 80세가 넘는 지금, 그들의 생활과 병고는 어디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인지...”

그는 나눔의집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진지하다. 그만큼 할머니들의 삶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그녀들이 당했던 일이 잊혀지지 않기를, 우리 여성들의 아픔으로 남아 후손들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할머니들을 향한 인권적인 측면을 다루는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지요. 하지만 이들이 진짜 삶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느끼는 아쉬움들, 언젠가는 책으로 엮어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글·사진=김강진 기자

“화염에 타버린 소년의 꿈 찾아주세요”

생명나눔 선정 2월의 환우 김명진군

명진이(11)에게 사고가 일어난 것은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지난해 12월 유난히 춥던 어느 날, 보일러에 기름을 채우다 아궁이의 나무 켄들이 명진이 바지도 옮겨 불고 말았다. 지체장애 아버지가 추우실까 걱정하던 마음이었을 뿐인데 명진이는 이 사고로 체표면

적 50~59% 화염화상을 입었다. 화상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상처의 아픔으로 잠 못 드는 날도 많았다. 그 고통 속에서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명진이는 웃음을 잃지 않았다.

아직 꿈 많은 열여덟 살, 부스럼 제거술과 두 차례의 피부이식을 받아 조금씩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아픔과 치료만 생각할 수가 없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



에 치료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해 지체장애가 있는 아버지는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농자금을 대출받아 버섯재배를 시작했는데, 첫 수확의 실패로 5000만원의 부채만 안게 됐다. 아픈 몸도 아이들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이곳저곳 수소문해보지만 벌써 1300만원 이상 발생한 수술비, 앞으로 4차례 더 시행해야 하는 피부

이식수술과 관절구축 및 후유증을 예방하기 위한 재활치료비를 마련하기가 막막하기만 하다.

명진이는 유독 축구를 잘 하고 운동을 좋아해서 체육대학교에 진학해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밝고 낙천적인 성격은 명진이가 아픈 상처를 이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명진이에게 필요한 것은 불자들의 따뜻한 손길이다. 후원계좌 통번 053-01-243778(예금주: 생명나눔) (02)734-8050 김강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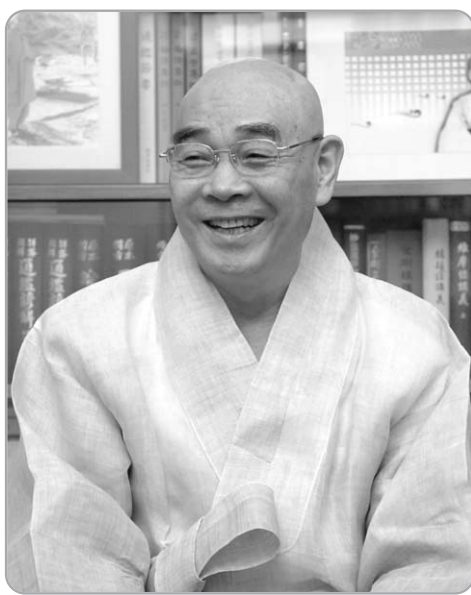
혜거 큰스님께 듣는 금강경

금강경 개강

개강 불기 2552년 3월 6일(목)
시간 오전 10시 30분

관음보살 점안식

날짜 불기 2552년 3월 9일(일)
시간 오전 10시 30분
장소 공생선원 대법당



※ 참선입문·경전반·참선반 3월 개강 대모집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 ☎ 02)900-2448
http://cafe.daum.net/zenmaster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펠드 마이크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음역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펠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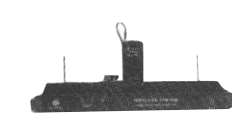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로,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高音質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소리공양 종목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특징: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민호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